



3면

6월 국내 생산·소비·투자 '트라폴' 증가
현재·미래 경기 지표도 나아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8월 3일 월요일 (음 6월14일)

제259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국회의원-전북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지난달 3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예산 확보·현안해결 '한뜻'

정치권·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 갖고 협력 모색 공공의대 조기설립·국립감염병연구소 전북지정 등

지난달 31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14명의 시장·군수, 지역국회의원이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과 주요 현안의 해법을 찾고자 원탁이 되어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의 발전을 견인할 2021년 국가예산사업의 최대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과 공공의대 조기 설립, 국립감염병연구소 전북 지정 등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전북도의 2021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송 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은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된 이후 기재부 2차 예산심사가 마무리되고, 미결, 쟁점사업에 대한 3차 심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연계사업을 비롯해 주력산업 체질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 삼각농장·농생명, 여행체험 1번지, 새만금SOC 등 도정 주요 분야별로 추가 확보가 필요한 타깃 사업을 선정해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기재부 2차 심사까지 과소미반영된 전북도 주요사업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상임위별로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으며, 도의 중점 사업들을 삭감 없이 반영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 적

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시급한 전북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공공 의료인력 확충, 감염병 연구 등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국립공공의대법 신속한 처리를 통한 공공의대 조기 설립과 함께 인식에 있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인공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국내 유일의 탄소 전문가인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해 우리나라 탄소산업의 종량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전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서울·부산 금융중심지와 차별화된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이외에도 군산조선소 재가동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 새만금 사업법 개정, 국가중장기 종합계획 반영 등을 위한 다양한 해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14개 시장·군수는 시군별 주요 국가예산 사업 및 현안을 건의하며 정치권, 도와의 공조를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산업기반이 부족한 전북경제에 코로나 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과 연계된 다양한 국가예산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정치권, 시군의 소통을 강화하고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어 "국립공공의대법 처리와 국립감염병연구소 지정, 미래 먹거리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북 지정,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에서도 한국판 뉴딜사업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내년도 국가예산사업 확보와 본격화 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현안 해결에 도 및 시군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도는 기재부 단계 최대 예산 확보를 위해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가 총 출동, 각 부처 및 기재부를 방문해 막바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쟁점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시군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북 대대야이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저출산 극복 '배려풀 전북' 통했다

전국 우수사례로 꼽혀... 특고세 1억원 확보

전북도(도지사 송하진)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배려풀 전북'이 전국 우수사례로 꼽혀 특고세 1억원을 확보했다.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 사례 경진대회'는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3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저출산 시책을 공모해 1차 도 자체 심사와 2차 온라인 국민평가 및 심사위원단 평가를 거쳐 광역 3건, 기초 8건의 사업을 선정하고 이날 발표식사 후 최종순위를 결정했다.

전북도의 위킹맘(워킹맘) 배려하는 직장문화 '배려풀(Full) 전북'은 공식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우며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를 선도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출산 육아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연초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천메시지를 공모하고 관련 부서 실무 TF팀을 구성해 수차례의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배려풀 전북' 3개 분야 10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실효성 있는 출산육아 분야의 지원제도 개선과 활용으로 다자녀 공무원 인사상 우대, 워라벨로 가는 유연근무 활성화, 특별휴가 "눈치 안보고 쓰기" 직원자녀

출산복지 혜택 확대 등을 발굴했다.

이어 임신부·육아 직원 분야에 배려문화 활성화로 임신·육아 직원 360° 배려하기, 배려풀 실천 공감 확대, 임신부 전용 쉼터 설치 등을 발표했다.

또한 지역 내 배려풀 분야 직장문화 확산으로는, 시군과 함께 실천하기 공공기관 내 출산·육아 장려문화 확산, 기업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발표했다.

도와 공무원노조간 업무협약 체결로 실천 다짐의 계기를 마련하고 부서별 배려풀 실천 릴레이를 통해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앞으로 도, 시군, 공공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기관 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 우수한 시군은 포상하고 도 신하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에서는 2020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저출생, 청년 일자리, 고령화·중장년,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 등 6대 분야별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변화와 관련된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도민 인구교육과 미래세대 대학 인구교육 강좌 지원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따른 인식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유호상 기자

스쿨존 불법주정차 오늘부터 과태료 8만원

전북도, 주민신고제 운영... 주말·공휴일 제외

전북도는 지난 6월 29일부터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계도기간(7월 31일)을 마치고 8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위반지역이 모호한 경우 계도장을 통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계획

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하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지역을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 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

이 부과된다.

작년 4대 불법주정차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 이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확대했다. 확대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 교통사고가 대부분이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매우 큰 위협 요소라는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1,394건, 누계)를 분석한 결과 주로 초등학교 주 출입구의 150m 이내

에서 가장 많이 발생(782건, 75.4%)하였으며 활동시간인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965건, 95.5%)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도는 공동주택 안내판 홍보물 비치 홍보영상 상영 모바일 등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도 실시해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